

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

6. 예배는 꼭 교회에서 드려야 하나요? [요 4:20-24]

✚ 예배를 교회에서 드린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에 그 질문을 한 대상자를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어쩌면 이 시대에 참 예배가 사라지고, 참 예배자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.

✚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분명하고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합니다.
⇒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는다면 어디서 드려야 한다는 건가요?

✚ 동시에 이 질문을 던진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.

① 예배는 하고 싶은데 교회는 가기 싫다는 말인가?

② 교회는 가고 싶은데 예배는 싫다는 것인가?

⇒ 그들의 의도를 알아야 그 의도에 맞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.

✚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예배와 교회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

✚ 구약에는 예배에 관한 대표적인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.

① 아바드 Abad - (אָבַד)

② 샤하아 Shachah - (שָׁחָה)

① 아바드 Abad - (אָבַד)

⇒ 아바드는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. 예배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예배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뜻에서 '아바드'라고 했습니다.

② 샤하아 Shachah - (שָׁחָה)

⇒ 샤하아는 종이 주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. 하나님 앞에 이마를 땅에 대고 복종하여 예배 대상의 존재 가치를 (인정)하는 행위입니다.

✚ 우리가 구약의 예배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. 바로 (제사)입니다. 그렇기에 (제사)에는 '아바드'와 '샤하아'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.

✚ 그리고 우리가 왜 섬기는 자세로,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'복'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아야 합니다.

✚ 복(福)

- ① 복(福)은 보일 시(示) + 복(畝)의 합성어입니다.
 - ② 보일 시(示)는 (제단)을 상징하며 동시에 신을 상징합니다.
 - ③ 복(畝)은 ‘술 향아리’를 보고 만든 상형문자입니다.
- ⇒ 따라서 복은 제단 앞에서 잘 빛은 술 향아리를 드리는 모습인 겁니다.

✚ ‘복’이란 신에게 복을 (구걸)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신에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며 (감사)를 드리는 것입니다.

✚ 히브리어로 ‘복’은 ‘바라크(ברך)’입니다. 여기에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.

- ① 무릎 꿇고 기도한다.
- ② 무릎 꿇고 경배한다.
- ③ 하나님이 복을 주신 상태
- ④ 감사하며 찬양한다.

✚ 우리가 왜 구약에서 제사, 예배를 드렸나요? 그건 우리가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제물을 드리며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.

✚ 신약의 예배는 헬라어로 ‘프로스쿠네오(προσκυνέω)’라고 합니다. 여기에도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

- ① ‘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다.’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(복종)
- ②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‘입맞춤하다.’라고 정의됩니다.(친밀함)
- ③ 상급자에게 하급자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어 행동을 가리킵니다.(경의)
- ④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무릎 꿇고 절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.(영적 교제)

✚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복종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, 단순한 친밀함에 머물러서도 안 되며, 경의를 넘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

✚ 예배드리는 것은 신의 복을 받은 이들의 (특권)입니다.

❖ 내가 복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겠거나 까먹을 때가 많나요?
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합니다. 예배는 우리가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합니다. 내가 예배드리며 받은 복을 깨달은 경험이 있다면 생각하고 나누어 봅시다.

♣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요? 대개 교회라고 하면 십자가가 세워진 건물을 생각할 테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.

“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.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(공동체)를 이르는 말입니다.”

♣ 헬라어로 교회는 ‘에클레시아(ἐκκλησία)’입니다.

⇒ 문자적인 뜻은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집 밖에서 모으는 것입니다.

♣ 즉 교회란, ‘죄악 된 세상에서 나와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집합체인 것입니다.

❖ 그렇기에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. 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나요? 예배당에서의 나와 밖에서의 내가 다르진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.

♣ 예수님께서서는 2000년 전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정의하고 선포하셨습니다.

♣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.

“우리는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.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까?”

♣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.

“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알고 예배하는지, 모르고 예배하는지가 중요하다.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.”

♣ 예수님의 이 선포를 통해 제사로 드러지던 예배가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.

♣ 이제 우리는 제물이 아닌 정결한 (영혼)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와야 합니다. 정결한 영혼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일상을 채우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.

♣ 참된 예배는 공적인 예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. 공적인 예배를 통해 채운 진리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예배가 됩니다. 다음 바울의 외침을 읽어 봅시다. [롬12:1]

♣ 오늘 주제의 질문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유는 어쩌면 그들이 삶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걸 원하지 않아서, 말씀 듣는 건 좋지만 그대로 행동하는 건 원치 않아서 일지도 모릅니다.

♣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혼자서는 세상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힘들기

때문입니다.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. [롬12:2]

✦ 인생의 선배들은 예배와 교회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?

예배자를 예배의 대상되신 주님처럼 변화시키는 것, 그것이 예배이다.

- 잭 헤이포드

위대한 영적 법칙 중 하나는,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.

- 톰 라이트

우리는 예배 안에서 일상을 사는 법을 배운다.

- 티시 해리슨 워런

교회에 간다고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. 수레가 차고로 간다고 저절로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.

- 빌리 선데이

교회는 오직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 위해 존재한다.

- C.S. 루이스

✂ **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. 다음의 문답을 외워봅시다.**

예배란 무엇입니까?

⇒ 예배는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복 받은 사람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.

교회란 무엇입니까?

⇒ 교회는 예배당이 아닌 사람입니다.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.

예배는 꼭 교회에서 드려야 합니까?

⇒ 그렇습니다. 장소는 어디가 되어도 문제 되지 않지만,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와 함께 드려야 합니다.